

# 99년 2/4분기 정보통신부문 고용동향

조사연구실 동향분석팀

## 조사목적

전산업에 걸쳐 종사하고 있는 정보통신 전문인력 및 정보화 인력에 대한 고용현황을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조사·작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화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규모를 파악하여 정보통신 산업정책 및 정보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신뢰성 있는 고용통계를 분기별로 제공함으로써 향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한다.

## 조사대상, 범위 및 현황

조사대상으로는 정보통신 관련 7,800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, 조사범위는 정보통신산업(서비스, 기기, S/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), 정보통신 관련 산업(정보통신기기 유통업, 정보통신공사업), 타산업 정보화 인력(한국표준산업분류의 15개 업종)으로 구분하였으며, 조사 현황은 회수 4,624개, 미회수 2,768개 업체, 결번·폐업 등 408개 (미회수의 경우 비례당

1,562개, 실질 미회수 1,206개; 실질 회수율 79.3%)로 나타났다.

## 조사내용

### • 업체 일반사항

사업체명, 대표자명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주소(소재지), 조직형태, 상장유무, 설립연월, 작성자(성명, 연락처 등)

### • 고용현황

정보통신산업 인력, 정보화 인력

## 조사결과 요약

조사결과 99년 2/4분기 정보통신부문 인력은 총 1,038,392명으로 99년 1/4분기대비 1.7%(17,773명) 증가하여 99년 2/4분기의 0.8% 감소에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.([표 1] 참조) 특히 타산업 정보화 인력의 증가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.

[표 1]

정보통신부문 인력 현황

(단위 : 명, %)

구 분	'98년	'99. 1/4	'99. 2/4	증감(율)
정보통신산업 인력	376,734	375,868	376,177	309(0.1)
정보통신서비스	98,159	97,855	97,602	-253(-0.3)
정보통신기기	235,169	234,724	234,881	157(0.1)
S/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	43,406	43,289	43,694	405(0.9)
정보통신 관련산업	169,025	167,824	169,500	1,676(1.0)
정보통신공사업	56,594	55,267	56,278	1,011(1.8)
정보통신기기 유통업	112,431	112,557	113,222	665(0.6)
타산업 정보화 인력	483,533	476,927	492,715	15,788(3.3)
합 계	1,029,292	1,020,619	1,038,392	17,773(1.7)

[표 2]

정보통신산업의 인력 현황

(단위 : 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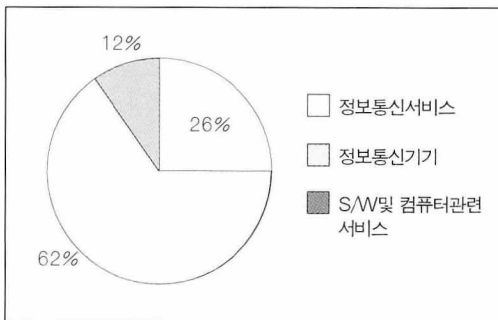
구 분	'98년	'99. 1/4	'99. 2/4	증감(율)
정보통신서비스	98,159	97,855	97,602	△253(△0.3)
정보통신기기	235,169	234,724	234,881	157(0.1)
S/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	43,406	43,289	43,694	405(0.9)
합 계	376,734	375,868	376,177	309(0.1)

### 정보통신산업

99년 2/4분기 정보통신산업 인력은 376,177명으로 99년 1/4분기대비 0.1%(319명) 증가하였으며 이는 99년 1/4분기에 0.2% 감소했던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. ([표 2] 참조)

정보통신산업 인력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97,602명, 정보통신기기 234,881명, S/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43,406명으로 각각의 전체정보통신산업인력에 대한 비중은 28.1%, 62.4%, 11.5%로 나타났다. ([그림 1] 참조)

[그림 1] 정보통신 인력의 산업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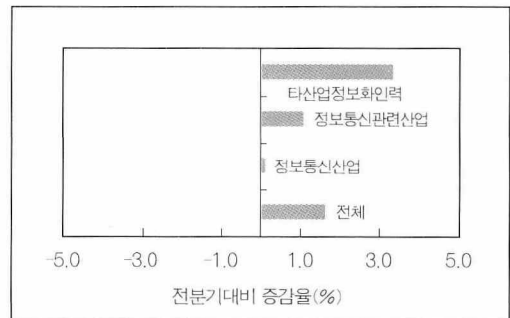


전분기 대비 증감 현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, S/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가 0.9%(405명), 정보통신기기가 0.1%(157명) 증가한 반면, 정보통신서비스 인력은 0.3%(253명) 감소하였다. ([그림 2] 참조)

그 주된 요인을 부문별로 살펴보면, 정보통신서비스(부가통신서비스 제외)의 경우 IMF체제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의해 인원 감축이 있었으나, 99년 2/4분기 이후에는 급격한 인원 감소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.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부품산업의

내수, 수출 확대 등이 인력 증가의 주요인이며,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불법 S/W 단속, 정보화 추진 및 경영혁신(BPR) 도입에 따른 각 업종별(통신, 유통, 및 금융 부문 등) DW, ERP 도입 등에 힘입은 매출액 증가가 인력 충원의 주된 요인이었다.

[그림 2] 정보통신부문 부문별 인력 증감을



### 정보통신서비스

99년 2/4분기 정보통신서비스 인력은 9만7602명으로 99년 1/4분기대비 0.3%(253명) 감소하여 99년 1/4분기 0.3%의 감소에 이어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. ([표 3] 참조)

정보통신서비스 인력의 부문별 비중은 기간통신서비스 65,892명으로 67.5%를 차지했고, 부가통신서비스가 9,194명으로 9.4%, 방송서비스가 2만 2516명으로 23.1% 차지했다.

전 분기대비 증감을 부문별로 살펴보면, 부가통신서비스 인력, 방송서비스인력이 각각 0.1%, 0.4% 증가했고, 기간통신서비스 인력은 IMF체제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0.3% 감소하였으나 99년 2/4분기 이후에는 급격한 인원 감소 요인은 없는 것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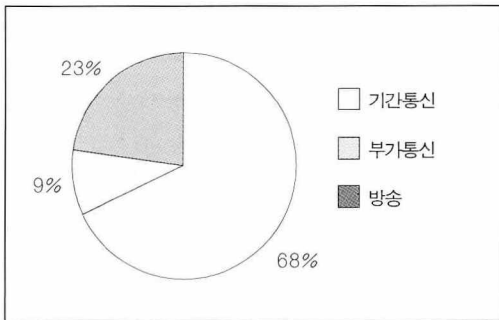
[표 3] 정보통신서비스의 인력 현황 (단위: 명, %)

구 분	'98년	'99. 1/4	'99. 2/4	증감(율)
정보통신서비스	98,159	97,855	97,602	△253(△0.3)
기간통신서비스	66,558	66,229	65,892	△337(△0.5)
부가통신서비스	9,185	9,189	9,194	5(0.1)
방송서비스	22,416	22,437	22,516	79(0.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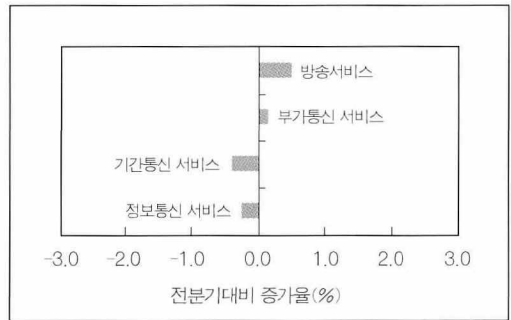
[표 4] 정보통신기기의 인력 현황 (단위: 명, %)

구 분	'98년	'99. 1/4	'99. 2/4	증감(율)
정보통신서비스	235,169	234,724	234,881	157(0.1)
통신기기	43,387	43,221	42,964	-257(-0.6)
정보기기	34,374	34,360	34,500	140(0.4)
방송기기	5,298	5,277	5,286	9(0.2)
부품	152,110	151,866	152,131	265(0.2)

[그림 3]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산업별 인력



[그림 4] 정보통신서비스 부문별 인력 증감률



보여진다. 부가통신서비스는 최근의 인터넷 관련 사업의 확대와 정보제공서비스(IP)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력이 증가하고 있고, 방송서비스는 최근의 CG, 디지털방송 부문에 대한 인력보강이 99년 상반기 동안 이루어졌다.

### 정보통신기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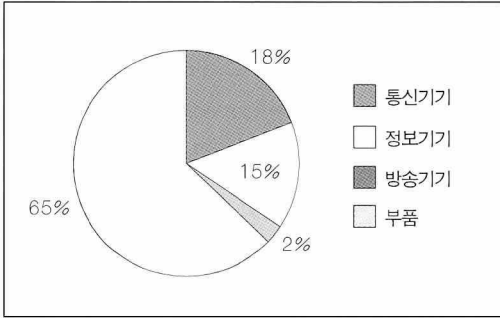
99년 2/4분기 정보통신기기 인력은 234,881명으로 99년 1/4분기대비 0.1%(157명) 증가하여 99년 1/4분기 (0.2%)의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. ([표 4] 참조)

정보통신기기 인력의 부문별 분포를 살펴보면, 통신기기 4만2964명, 정보기기 3만4500명, 방송기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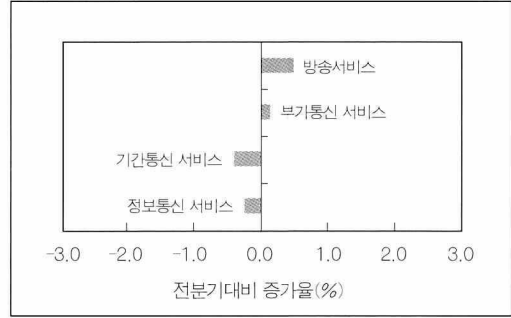
5286명, 부품 15만2131명으로 각각 전체대비 18.3%, 14.7%, 2.3%, 64.7%를 차지한다.

이중 통신기기의 경우, 전분기대비 0.6% 감소하였는데, 이는 98년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따른 호황으로 충분한 인력확보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. 반면 정보통신기기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과 정보기기, 방송기기 등에서 인력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. 반도체 및 LCD(TFT-LCD 포함)의 최근 수출호조로 부품분야 인력이 0.2% 증가하였고 정보기기의 경우 최근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에서 저가용 PC의 등장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내수 및 수출이 호전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.

(그림 5) 정보통신기기부문 산업별 인력



(그림 6) 정보통신기기 부문별 인력 증감율



### S/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

99년 2/4분기 S/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인력은 4만3694명으로 99년 1/4분기대비 0.9%(406명) 증가하였다. 역시 99년 1/4분기 0.3% 감소세에서 반전된 것이다.

S/W 산업에서의 인력증가는 불법 S/W 단속 등에 따른 매출액 증가추세에 따른 것이며 정보화 추진 및 경영혁신(BPR) 도입에 따른 각 업종별(통신, 유통, 및 금융 부문 등) DW, ERP 도입에 따른 프로젝트 수주확대에 따라 인력 충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. 또한 타산업에서의 업무효율화 추진에 따른 아웃소싱 증대로 시스템 운영(SM) 사업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력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.

### 정보통신 관련산업

정보통신 관련 산업 인력은 99년 1/4분기 대비 0.9%(1,676명) 증가하여 총 16만9500명으로 나타났다. 분야별로는 정보통신공사업에서 1.5% (1,011명), 정보통신기기 유통업에서 0.6%(665명) 증가했다.

이는 상반기중에 기업, 정부의 네트워크 관련 발주가 확대되고, 하반기에도 네트워크 관련 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리 관련인력을 확보했기 때

문인 것으로 보인다.

### 타산업 정보화인력

99년 2/4분기 타산업의 정보화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종사자수의 3.9%로 나타났는데 98년 3.8%, 99년 1/4분기 3.8%에서 0.1% 증가하여 전체 고용 중 정보통신부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. 업종별 분포를 보면,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32.7%로 가장 높고, 전분기대비 증감율을 보면, 금융 및 보험업이 8.8%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.

### 고용동향 조사의 시사점

99년 2/4분기 들어서 정보통신부문 인력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의 증가와 함께 산업 전반에 걸친 정보화 확산에 따른 인력 수요 확대에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.

이중 고용증가가 두드러진 부분은 정보통신산업 중 소프트웨어 부문, 정보통신 관련산업 중 정보통신공사업, 타산업 중 금융 및 보험업으로 나타났다.

이러한 고용 증가를 가져온 요인으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정보화 추진을 들 수 있다.

(표 5)

S/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인력 현황

(단위 : 명, %)

구 분	'98년	'99. 1/4	'99. 2/4	증감(율)
S/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	43,406	43,289	43,694	405(0.9)

특히 상반기 중 집중 실시된 S/W 불법복제 단속, 정보화예산의 조기집행 추진, 정부행정 전산화 등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보화 추진과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배경으로 적극적인 경영혁신(BPR)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ERP, DW 등 기업정보화의 추진, 인터넷 쇼핑몰, EC 등 전자상거래의 확산 등이 99년 상반기 중 정보통신인력 고용의 주된 증가

요인으로 보인다.

향후 정보통신부문 인력은 경제 전반의 회복과 함께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그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, 특히 인터넷의 확산 등 정보통신산업의 네트워크화 경향이 확대되면서 관련 부문 인력 수요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동 정

## 정보통신분야 고급인력 양성 위한 '장학프로그램' 시행

정보통신부, 올해부터 2002년까지 총 104억 투입키로

정보통신부는 ASIC설계, SW공학 등 첨단 정보통신분야를 이끌어갈 고급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 우수인재가 해외 우수 대학에서 최신 정보통신 고급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.

이를 위해 국내 우수인재가 정보통신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미국 등의 우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02년까지 10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.

이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50년씩 총 200명의 선발된 장학생이 선진외국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.

해외 우수 대학에서 정보통신분야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학사 이상의 학생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

정부는 신청학생들을 어학능력·전공지식으로 심사해 선발된 학생에게는 2000년부터 입학할 수 있도록 학비 및 제제비 등 1만8200달러(미국 기준)를 지원하게 된다.

또한 해외대학 및 산업체 등의 우수 연구기관에서 최신 정보통신 기술 및 동향 등을 습득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과정에 참여코자 하는 박사학위 취득자 및 안식년 중인 교수 등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

정보통신부 관계자는 "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향후 5년간 석·박사 수준의 고급인력 중 필요인력의 64.1%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"며 "이번 사업을 통해 4~5년 후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고급인력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"고 설명했다.